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3

데살로니가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3:13)

Ἑμεῖς δέ, ἀδελφοί, μὴ ἐγκακήσητε καλοποιοῦντες.

데살로니가후서 차례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11제〉	509
제 1 장 그리스도의 재림	〈16제〉	515
제 2 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18제〉	522
제 3 장 바울의 부탁과 교훈	〈15제〉	529

데살로니가후서 특별 자료 차례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연구 자료〉 적그리스도(Antichrist)	513
제 1 장 〈화보 자료〉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전경(前景)	521
제 2 장 〈본장의 요절〉	528
제 3 장 〈본장의 요절〉	534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저자가 3:17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고 밝힘으로써 본서신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이에 대한 내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지극한 관심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증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감사 등(1:3, 11, 12; 2:13; 3:3-5)은 이미 그가 기록했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자세와 동일하다(살전 2:11, 12, 17; 3:10).
- (3)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1:1)과 이전 교훈들에 대한 그의 언급(2:5, 15; 3:6)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기도에 관심을 갖도록 한 그의 주장(3:1) 등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그의 어투의 특성과 다를 바 없다(살전 1:1; 5:25).
- (4) 또한 외적 증거 역시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순교자 저스틴(Justin, A. D. 100-165)이나 폴리갑(Polycarp, A. D. 70-156),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15-142), 터툴리안(Tertullian, A. D. 150-220),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 - 215) 같은 감독, 교부들은 자신들의 저서에서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밝히고 있다.
- (5) 또한 최초로 신약의 정경(正經) 문제를 논한 마르시온이 개인적으로 채택했던 마르시온 경(Marcion Canon, A. D. 144년경)이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Fragment, A. D. 4 C경) 그리고 고대 수리아 역이나 라틴 역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 (6)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본서신의 저자가 살전의 저자와 동일 인물인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다.

2. ㉠ 본서신의 정경성과 저자 문제에 대한 반론(反論)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후편으로 같은 저자에 의해, 같은 수신자에게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보내졌다는 것이 일반 정설(正說)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 (2) 즉 살전에는 예수의 '재림'(헬, 파루시아)이 임박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본서신엔 징조들, 특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재림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살전과 본서신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Holtzmann, Weizsäcker, Schmidt 등).
- (3)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의 목시들이 징조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과 예비적인 준비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음을 잊고 있다. 더우기 살전 5:1-11에서 바울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는 표적을 보고 재림에 대비하라는 본서신의 교훈과 일치함을 보여 준다(참조, 2장).
- (4) 또 다른 반론은 적그리스도나 재림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본서신의 수신자(受信者)들(2:5)이 살전 4:13 이하에 설명된 것을 몰랐을 리가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 (5)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재림에 관한 모든 교훈들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초신자들 중 몇 사람은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점은 미처 생각치도 못하고 교회를 문란케 하였다(3:10-12). 따라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다시 그들을 교훈한 것이었다.

- (6) 또한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문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바울의 저작이라면 서신마다 약간씩 다르게 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이다.
- (7) 그러나 본서신과 살전이 문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부 사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 (8) 뿐만 아니라 본서신의 일반적인 어조는 살전보다 더 차갑다고 반박한다. 이것은 저자가 처한 환경과 기분에 따른 어조의 차이이기 때문이며(3:2) 본서의 차가운 표현은 몇몇 귀절에만 국한되어 있다(1:3;2:13;3:6, 12).
- (9) 이외에도 시기나 수신자에 대한 반론들이 있으나 그 모든 주장들은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과 본서신의 정경성을 부인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3. ㉠ 본서신이 살전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반론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 장소인 고린도에서 얼마간의 시일이 흐른 후에 기록되었다.
- (2) 그러나 본서신이 살전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아래와 같은 여러 반론들이 있다.
- (3) 첫째, 본서신에는 환난이 극도에 달했음을 말하고 있으나 살전에서는 그 환난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1:4). 그러나 이 반론은 살전 3:4에 언급된 환난이 본서신을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존재함을 간과하였다.
- (4) 둘째, 본서신에는 내부적인 어려움(3:6-15)이 새로운 사실로 등장했으나 살전에서는 그것들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나타난다(살전 4:11, 12; 5:14). 그러나 이 차이점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데 살전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으나 본서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확대된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5) 이외에도 여러 반론(反論)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 즉 본서신에는 앞서 써 보낸 편지를 확실히 가리키는 귀절이 있다(2:15).
- (6) 또한 살전 1:6;2:13에서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본서신 1:3에서 바울은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2:15;3:6-12).
- (7) 그리고 살전 4:1-12;5:12-28에는 몇몇 명령이 있는데 본서신에서는 이런 명령들 중 일부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명백한 지시가 있다.
- (8) 더우기 본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거짓 서신에 대해 경계시키면서(2:2),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3:17)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본서신이 둘째 서신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
- (9) 이 같은 여러 증거들은 데살로니가후서가 전서보다 후에 쓰여졌음을 보여 준다.

4. ㉠ 바울이 본서신을 쓴 장소와 시기에 대해 설명하라.

- ㉠ (1) 사도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곳과 동일한 고린도이다.
- (2) 행 16:11-40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제 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에서 활동했다. 그곳에서 그는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로 갔고 이어서 아텐으로 갔다(행 17장).
- (3) 바울이 아텐으로부터 고린도로 갔는데(행 18:1) 그곳에 디모테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되었다(행 18:1, 5).
- (4) 한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 같은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찾아 볼 수 있다(살전 2:2;3:1). 더우기 '디모테가 이제 도착했다'(참조, 살전 3:6)는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디모테와 실라의 고린도 도착이라 볼 수 있다.
- (5)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쓰여졌음을 알 수 있

다. 첫번째 서신에 대한 답장을 받은 바울은 그의 가르침(살전 5:1-11)에 관하여 다소 오해가 생겼음을 알고 곧 본서신을 쓰게 된 것이다.

(6) 그러므로 본서신도 바울의 고린도 체류 후반기인 A. D. 52, 53년경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5. **㉠** 본서신의 수신자(受信者)는 누구인가?

㉡ (1) 본서신을 받은 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다.

(2) 그러나 하르낙(Harnack)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따로 모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살전은 이방인 교회에게, 본서신은 유대인 교회에게 보내어졌다고 한다.

(3) 그 이유로 첫째, 살전(1:9)에는 수신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므로 이것은 이방인에게 보낸 것이며, 본서에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단어가 많으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견해이다.

(4)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많은 구약 성경의 자료들이 제시된다는 것과 본서신에는 유대주의 색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귀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위의 견해의 타당성을 희박케 한다.

(5) 둘째, 2:13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란 귀절에서 '처음부터' 대신에 '첫 열매로 대치된 사본들이 많다. 만약 이 대치가 옳다면 하르낙의 견해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첫 열매'나 바울의 '첫 개종자'가 아니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믿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6) 또한 살전 5:26 이하에 있는 '모든 형제'란 말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모든 형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7) 그러나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둘로 분할되었다면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 더우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갖고 있던 기쁨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8) 비록 다른 곳(고전 1:11, 12)에 분열된 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9) 그리고 두 서신의 첫 부분은 똑같다(1:1, 2; 살전 1:1). 그러므로 그것들이 다른 두 교회에 각기 보내어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0) 더우기 '모든 형제'라는 어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르낙의 견해는 지지될 수 없다.

(11) 이처럼 하르낙이 제시하는 증거가 확실치 않고 그에 대한 충분한 반박 견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두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이 두 서신이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6. **㉠**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1) 바울이 첫번째 서신을 써 보내긴 하였지만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그에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보다 더 박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번째 서신을 쓰게 된 것이다.

(2) 즉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바울이 말한(살전 5:3) '갑작스러운 재림'을 '즉각적인 재림'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할 뿐 아니라 무위 도식(無爲徒食)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다.

(3) 또한 그에 따라 '교회는 교훈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 (4) 따라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두번째 서신을 썼다. 그가 두번째 서신을 첫번째 서신을 쓴 직후에 썼다는 증거는 그가 데살로니가를 두번째로 방문하기 전에 그것을 보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며(참조, 행 20:1-16) 바울과 실라와 디모테가 두번째 서신이 보내지기 전 공백기 동안 함께 머물렀던 도시는 고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행 18:1, 5).

7. **㉠ 본서신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즉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불법의 사람’(2:3, 4)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7년 대환란) 불의한 자들을 미혹시켜 하나님께 대적케 할 것이다(2:9-11).
- (2)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헬, 바실레이아 투 데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얻을 것이다(1:5).
- (3) 또한 그들은 환난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며(1:7)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운명 대신에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1:7, 10, 12; 2:13, 14; 살전 1:10; 5:9).
- (4) 따라서 그들은 언제든지 참고 견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공중에서 그들을 불러모으실 구원자를 기대하기 때문이다(1:4-10; 살전 1:10; 4:15-17; 5:4, 9).
- (5)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평상적인 책임에서 풀려 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의식주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3:6-15; 살전 4:11, 12; 5:14).

8. **㉠ 본서신에 언급된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특징 중 첫째는 재림관이다. 즉 살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하며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살전 5:2) 본서신에는 재림 전의 종말의 징조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언급되어 있다(2:1-12).
- (2) 둘째는 본서신에 흐르는 분위기의 차이이다. 살전에는 아버지과 같은 자상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음에 반해(살전 2:11, 12, 17) 본서신에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훈계하는 엄격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3:6-14).
- (3) 그런데 이와 같이 본서신에 내용상 살전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나 종말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살전을 쓸 때와는 달리 본서신을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2:1-3; 3:6-14).

9. **㉠ 본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본서신은 살전보다 상당히 짧은데 그 주제가 서두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점차로 표면에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내용은 중심 주제를 주축으로 하여 살전보다도 더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 (2)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 반면, 인내로써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리고 2장에는 재림에 앞서서 배도(背道)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절대 동요가 없기

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 (4) 마지막으로 3장에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 먼저 나오며 뒤이어 예수의 재림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책망과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사도의 권위로써 명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10.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인사/1:1,2
 (2) 환난을 이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1:3-12
 ① 감사의 기도/1:3-5
 ② 하나님의 심판/1:6-10
 ③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1:11, 12
 (3) 주의 재림에 관한 바른 견해/2:1-17
 ① 주의 날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2:1, 2
 ② 배도(背道)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2:3-5
 ③ 막는 자의 출현/2:6-9
 ④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2:10-12
 ⑤ 성도를 위한 감사/2:13-17
 (4) 하나님의 신실성/3:1-5
 ① 기도의 요청/3:1, 2
 ② 하나님의 신실성/3:3-5
 (5) 경건의 훈련/3:6-15
 ① 규모 없는 행위/3:6-13
 ②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3:14, 15
 (6) 끝맺는 말과 축복/3:16-18

11. **㉠** 본서신의 요절은 무엇인가?

- ㉡**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3:13).

연구자료

적그리스도 (Antichrist)

1. 정의(定義)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 (2:3, 4) 또는 '자칭 그리스도로서 거짓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자'(마24:23, 24)를 의미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요일2:18, 22;4:3;요이1:7).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을 미혹하며(마13:21-23) 핍박하지만(눅2:16, 17)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정복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계20:10). 한편 이 같은 적그리스도는 비단 신약 시대 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활약했는데 그 당시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선민(選民)을

대적하며 꺾박하는 세력으로 이해되었다(겔38, 39장; 단7:7-27; 11:36-45).

2.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했던 뱀이다(창3:1-1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단의 세력(계12:9)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승리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마27:26-28; 롬1:4).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곧 '아침의 아들 제명성'(사14:12), '리워야단', '용'(사27:1), '곡'(겔38:1-39:16), '작은 뿔'(단7:8) 등이다. 이 중에서 리워야단과 용에 관하여서는 본시리즈 8권 P. 224 연구자료 '리워야단'을 참조하라.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예수계신 말세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마24:24; 막13:21, 22). 이들의 특성은 큰 표적과 기사(奇事)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라도 미혹하려 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벨리알'(고후6:15), '불법의 사람'(2:3), '멸망의 아들'(2:3) 등으로 칭하고 있다. 본서에 의하면 예수의 재림이 가까와질수록 성도들 가운데서 배도자(背道者)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2:1-4).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폐하여질 것이다(2:8). 이외에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은 계시록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제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화신(化身)인 두 짐승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20장에는 사단이 곡(Gog)과 마곡(Magog)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대적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해 멸절당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겔 38,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에 관한 기사와 유사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성경상의 언급을 종합해 볼 때 적그리스도란 말세에 나타날 실존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와 있다고 말하였다(요일4:3).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 믿음의 굳게 하며 악의 세력에 적극 대항해야 할 것이다(벧전5:8,9).

제 1 장 그리스도의 재림

단락구분 1-2 인사말 / 3-5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다 / 6-9 장차 믿음과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 10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 11-12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꾀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

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10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1) 바울은 문안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한다.

(2) 계속해서 그는 그들이 과거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입증될 때에 그들을 박해한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북돋웠다.

(4) 또한 바울은 이 모든 환난과 심판과 안식을 주 예수의 재림을 전후한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그분의 재림은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가르쳤다.

(5)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재림 때에 영광의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잊지 않았다.

(6) 이 같은 소원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 본서신의 표현 형식에 대해 설명하라(1, 2절).

㉠ (1) 일반적으로 고대의 편지들에는 편지 서두에 'A가 B에게 문안한다'는 식으로 되어진

몇 개의 형식이 있었다.

- (2) 그리고 이 문안으로 시작한 후 대개 종교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로 기원하는 내용이 꾸며지게 된다. 비록 성도가 그의 원수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으며 자신의 서신 내용이 진실하거나 신실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 (3) 한편 본절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란 표현은 교회의 전형적인 표현법이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교도가 아니며 유대교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 (4)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두 인격을 함께 언급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바울의 인사말은 당시의 전통적 표현법과 독특한 기독교적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안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중심한 인사말들이 오고 가야 할 것이다.

3. **㉠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빌립보서(빌1:1)에서도 이러한 칭호를 생략하였다.
- (2) 이에 반해 바울은 고린도전.후서(고전 1:1; 고후 1:1) 및 갈라디아서(갈 1:1)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그들 중에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4. **㉠ 실루아노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그는 사도행전의 ‘실라’와 동일 인물로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예언자나 영감을 받은 교사로 인정된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행 15:2, 32).
- (2) 그런데 그의 이러한 라틴식 이름은 그가 헬라화한 유대인이며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행 16:37).
- (3) 한편 그는 유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파견단의 일원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사도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행 15:22).
- (4) 또한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 대신 바울을 수행하였는데(행 15:40) 바울과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투옥당하였고 데살로니가, 베뢰아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였다(행 17:1, 10; 18:5).
- (5) 이처럼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함께 일했던 실루아노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복음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동역자의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5. **㉠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절)**

- ㉠** (1) 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인 그는 바울의 제자로서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전해 받은 자였다(참조, 행 16:1; 딤후 1:5).
- (2) 그는 바울의 두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함류하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및 고린도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행 18:5).
- (3)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동행하였고 바울에 의해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에 파송되기도 했다(행 19:22; 고전 16:10).
- (4) 더우기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같이 있었고 그 후에 에

베소에 거주하였다(딤후 1:3), 그리고 그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불리어 갔다(딤후 4:21).

- (5) 그런데 인사말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의 공동 저자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목상의 저자에 불과하며 단지 바울이 본서신을 쓰는 일에 그들 중의 한 사람을 자신의 대필자로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6) 여하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좋은 동역자 뿐 아니라 훌륭한 제자를 두는 것이 그 특징이다. 말씀을 먼저 받아 성숙해진 성도는 항상 가르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스승 또는 신앙의 부모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6.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3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들의 사랑이 각기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바울은 그의 첫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살전 3:10)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 매우 안타까와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음을 헬라어 복합 동사 <휘페라옥시네이>(놀라움게 증가하다)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 (3) 한편 바울은 살전 3:12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했는데 지금 그들의 '사랑'(헬, 아가페)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었으며('너희 모두가') 개인 상호간에도 오고 갔었다('너희 각 사람').
- (4)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근원이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정점은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된다고 할 수 있다(참조, 요일 4:20, 21).

7. **㉠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4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인 것이다.
- (2) 여기서 그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헬라인들에게 받는 핍박을 가리킨다(살전 2:14).
- (3) 그런데 '환난'(헬, 슬립세신)이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며, '핍박'(헬, 디오그모이스)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말한다.
- (4) 그러므로 이 같은 복합적인 그들의 고통은 대단히 극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여러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 (5) 그리고 '인내'란 견뎌 낼 수 없을 정도의 무게 아래서도 끝까지 참아 내는 자세를 일컫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과 합해져야 한다. 따라서 그 '인내'란 단순히 육체적 욕심을 억제하는 금욕주의적 인내를 가리키지 않고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 (6)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인내를 자랑한 교회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지방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다(참조, 롬 16:1).
- (7) 한편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초대 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 (8)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나쁜 인식을 말끔히 씻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표적이 되는가? (5절)**

- ㉠** (1) 이는 하나님의 공의(公義)로운 심판의 표(標)가 된다.
- (2) 이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한 박해자들의 번영이라는 현실적인 모순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미래에 각 개인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

(3) 즉 그때에는 현재의 불공평한 일들이 조정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한 일이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전조이다(마 24:9).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갈 6:9; 빌 1:28).

9. **㉠** 공의롭지 않은 현실로 인한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인가? (5절)

㉠ (1)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꺾박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다.

(3)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자세가 필요했다.

(4)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보여 주었던 ‘믿음의 인내’와 앞으로도 계속 요구되는 신앙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왔다가 보다는 오직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었다(3, 10절; 2:13; 살전 1:8).

(5)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역시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6) 또한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함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라기 보다는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에 관심을 두고’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는 현실의 고통과 불만족을 능히 소화할 수 있다(참조, 고후 4:16-18).

(7)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었던 것이다.

(8) 이처럼 참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고후 8:5; 빌 3:8).

10. **㉠** 데살로니가 교인과 박해자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공의(公義)는 무엇인가? (6,7절)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꺾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받는 그들에게는 안식(安息)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2) 이는 ‘보복법’(報復法)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경륜에서 기인한 것이며 공정한 판결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르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賞)이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다(참조, 롬 12:19; 살전 1:6).

(3) 그런데 환난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헬, 아네신)이란 단어는 원래 극심한 갈등으로부터의 휴식이란 개념을 지니고 있다. 즉 이것은 온 인격의 휴식을 의미한다.

(4) 그리고 ‘우리와 함께’(7절)라는 귀절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역사상 수많은 박해자들이 불의를 자행하며 악하고 가진 것 없으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꺾박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공의(公義)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6)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그분의 공의의 법칙이다(참조, 사 30:18).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좇아

생활해야 할 것이다.

11. ㉠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실현될 것인가? (7절)

- ㉠ (1)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실현될 것이다.
- (2)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즉 당신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때 실행되는데 그 심판 자체가 계시의 일부분이다.
- (3) 여기서 '나타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폭로하다', '계시하다', '조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추어졌던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됨을 가리킨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들추어내시게 될 것이다.
- (4) 그리고 '저의 능력의 천사들'이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로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어진 존재이다(참조, 마 13:49; 16:27; 24:31; 살전 4:16; 유 1:14).
- (5) 또한 그분의 임재가 '불꽃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분의 주권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출 3:2; 사 66:15; 계 1:13-15).
- (6)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가리워지고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계시' 곧 임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선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審判主)로 오실 때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참조, 사 97:3; 계 1:7; 19:22).
- (7)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우리가 행할 일은 다만 선을 위해 애써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신 32:35; 롬 12:19; 히 10:30).

12.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형벌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 (2) 여기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법이다. 즉 구약 성경에서 형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집행할 수 있는 그분의 전유물로 소개되어 있다(신 32:35). 그런데 그 형벌의 집행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 (3) 그런데 형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 하는 은혜와 지혜 및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살전 4:5).
- (4)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란 전반절(前半節)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를 무시하는 자들을 뜻한다(참조, 롬 1:28).
- (5)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민족과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 (6) 더우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은 막중할 것이다(참조, 히 6:4-8).

13. ㉠ 불신자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떤 것인가? (9절)

- ㉠ (1)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 (2)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주의 임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며 '멸망'이란 완전히 멸절되는 상태가 아니라 몰락하여 삶의 의욕이 송두리째 박탈된 상태를 말한다.
- (3)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삶에 대한 가치를 모두 잃은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사 2:10, 19, 21; 마 7:23; 8:12; 22:13; 25:30; 눅 13:27).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약속된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다(마 25:41, 46).

- (4)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란 말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금의 사랑이나 자비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5) 한편 '그의 힘의 영광'이란 말은 현재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박해자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힘'은 지금도 그들을 위해 발휘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6) 이 같은 공의의 실현은 오늘날 박해를 받으면서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분은 강하시다(참조, 요 16:33).

14. **㉠**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은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10절)

- ㉠** (1) 예수께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奇異)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 (2) 여기서 '그날'이란 장차 예수께서 다시 나타날 마지막 날을 지칭한다(참조, 사 2:11,17).
- (3) 그런데 불의를 행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환난과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게는 '그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7절; 2:1; 살전 4:17).
- (4) 여기서 '성도들에게서'와 '모든 믿는 자에게서'란 귀절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 <엔> 곧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귀절은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즉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참조, 시 89:7).
- (6) 더우기 그날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놀라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기이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7)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參預)할 것이란 생각과 함께 그 같은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마음 든든할 수 있다.

15. **㉠** 괄호 안에 있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는 귀절은 무슨 의미인가? (10절)

- ㉠** (1) 이 귀절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의미이다.
- (2) 즉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인내로써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또한 그 속에는 비록 그들이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과 확신을 가질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격려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 (4) 오늘날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이 같은 격려와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참조, 딤후 3:2; 요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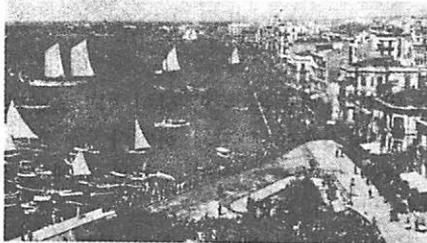
16. **㉠**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11, 12절)

- ㉠** (1) 그는 첫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시도록 하기 위해 기도했다.
- (2) 즉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기도했다는 의미이다.
- (3) 둘째,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을 위해 기도했다.

- (4) 여기서 ‘선’이란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인데(갈5:22) 그것은 옳바르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활동적인 성품을 뜻한다.
- (5)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보여 주었던 선을 위한 모든 결심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 (6) 세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기도했다.
- (7) 여기서 ‘이름’이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위엄과 주권과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 (8)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인격의 질(質)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닦는 것은 그들 속에 이런 일을 이루신 그들의 구주(救主)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 (9)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내주(內住)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 (10)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곧 주께서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이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참조, 요 15:4; 17:21; 롬 6:11, 23; 고전 1:5; 고후 13:4).
- (11)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참조, 롬 4:16; 11:5, 6; 엡 2:5, 8).
- (12)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남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해도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참조, 갈6:14).

화보자료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전경(前景).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이 도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로마 제국하의 데살로니가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주요 도시였던 만큼 바울이 이곳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행17:1-4)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한편 본서와 데살로니가전서는 당시 이곳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제 2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라구분 1-2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에 귀기울이지 말라 / **3-4** 적그리스도의 출현 / **5-10** 적그리스도의 유혹 / **11-12**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 **13-14** 성도를 위한 감사 / **15** 믿음을 지키라 / **16-17**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한 바울의 간구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9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

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14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라.

- ㉠ (1)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소문은 그들 모두를 흥분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 (2) 따라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상기시켜 동요를 막고자 하였다.
- (3) 즉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큰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지금은 그의 출현을 막고 있는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쳤다.
- (4) 그러나 그는 이와 더불어 그 영향력이 해제될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 (5)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과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을 폐할 것이므로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교훈했다.
- (6) 이 같은 바울의 말은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여 준 가르침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말이다.

- (7)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해야 할 부분은 핍박과 환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그것은 예수의 재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이나, 말로나 혹은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動心)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재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란 귀절은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믿는 이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의 사건이다.
- (3)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심'(분별력 없고 흔들림)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다.
- (4) 또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참조, 살전 5:2) 역시 예수 강림 직전에 성도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더우기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심하여서 이미 예수께서 강림하셨다는 소문은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했다.
- (5)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직 예수의 강림과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위로를 주었던 것이다.
- (6) 이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분별없는 비난보다는 현명한 칭찬을 하는 것이 그들을 좌절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참조, 살전 5:11, 14).

3. **㉠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2절)**

- ㉠** (1) 그중 하나는 '영' 곧 예언이라는 영적 은사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초자연적 계시로 이해된다.
- (2) 두번째는 '말' 곧 '보고'인데 이는 어떤 이들이 직접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온 '재림'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3) 마지막으로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 어떤이는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서 교회를 소란케 했을 것이며 어떤이는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를 받고 오해하기도 했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바울 자신이 예언이나 직접 말로 하거나 편지로 썼더라도 그들은 중요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예수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기 때문이다(마 24:36).
- (5)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재림주'나 '어린양'을 자칭하는 자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사단의 짓임을 깨닫고 더욱 분발하여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복음으로 부수어야 한다(참조, 벰전 5:8).

4. **㉠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절)**

- ㉠** (1)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 불법(不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 (2) 여기서 '배도'란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마 24:10-12; 딤후 4:1-3; 딤후 3:1-9; 4:3, 4).
- (3) 한편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는 힘든데 이는 역사 속에서 사단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2:18). 그러므로 이 인물을 어떤 특정한 인물과 동일시하기 보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그는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조, 요 17:12; 행 1:25). 즉 그가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할지라도 시한부에 그치는 존재라는 것이다.

- (5) 그런데 그는 마지막이 가까울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사단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사단은 아니지만(9절) 사단의 도구임이 분명하다.
- (6) 이 같은 증거들은 바울이 말하려는 것, 즉 아직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주의 날,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다.
- (7)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 같은 미혹과 악한 종교적 술수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들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벧후 1:5).

5. **㉠** '불법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4절)

- ㉠** (1) 그는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自尊)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 (2) 그런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대적자', '배반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며 이 말은 종종 사단에게 적용되었다(답전 5:14).
- (3) 또한 그는 '자신을 높이는 자'로 묘사되었는데 이 말은 '분수 넘게 높인다'라는 의미를 갖는다(참조, 고후 12:7). 즉 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이 세상의 지배권을 걸머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 (4) 한편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란 이방인의 신들 뿐 아니라 참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신을 가리키며(참조, 단 7:25; 11:36)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숭배함을 받은 자' 곧 성전이나 우상, 제단과 같은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
- (5)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위엄을 갖추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 13:14).
- (6)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자이다(3절).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교만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9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겸손뿐이다(참조, 잠 22:4; 벧전 5:6).

6. **㉠**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 (1) 바울이 이미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 (2) 여기서 '말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곤>은 과거에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 (3) 또한 그 말 속에는 만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다시 생각했다면 그 같은 헛소문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가르침을 잊고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에 더 솔깃하여 진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앙과 진리를 왜곡시킬 위험을 내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 묵상한 바를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1:1-6).

7. **㉠** '불법의 사람'의 출현이 저지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또한 그의 출현을 막는 것(막는 자)은 무엇인가? (6절)

- ㉠** (1) 먼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이 저지되고 있는 까닭은 아직 그가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 또는 '막는 자'는 곧 하나님이다.

- (3)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을 사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적 견해와 상치된다(Needham).
- (4) 왜냐하면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자가 사단인데(마24:24; 벰전5:8) 그 어떤 이유로든 그가 스스로의 의지를 거스려 자신의 도구인 ‘불법의 사람’(참조, ㉠ 4)의 출현을 저지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 (5) 한편 우리는 사단과 그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참조, 욥 1:6-12; 2:1-6). 그분께서는 필요에 따라 사단의 세력조차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신다(참조, 출10:1).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막는 자)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8. ㉠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 ㉠ (1) 그것은 ‘불법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참조, NIV).
- (2) 비록 ‘불법의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참조, 렘23:25-27).
- (3)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인 것이다(참조, ㉠ 2).
- (4) 아뭏든 이러한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목적도 곧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데 있다(참조, 마24:24).
- (5)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엡6:14-17)으로 자신을 중무장하여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혹당하는 다른 사람조차도 진리의 길로 인도해 들어야 할 것이다(참조, 롬12:21).

9. ㉠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는 언제이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출현을 허락하시는 때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파네이아)는 원래 ‘광채’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본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 네 번(1, 8절; 딤후6:14; 딤후2:13), 초림을 가리키는데 한 번(1:10) 사용되었다.
- (3) 아뭏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불법한 자’ 뿐 아니라 ‘불법한 비밀’ 조차도 멸망 당하게 될 것인데 계20:10, 14, 15에 의하면 그들은 유향 못에 던지워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권자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신32:10; 시17:8).

10. ㉠ ‘악한 자’ 곧 ‘불법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9, 10절)

- ㉠ (1)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表蹟)과 거짓 기적(奇蹟)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 (2)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 것처럼 그도 사단의 능력으로 일할 뿐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 (3) 여기서 ‘역사’(헬, 에네르게이아)는 ‘능력’(헬, 두나미스)과 다르다. 전자(前者)는 행동

하는 힘을 뜻하는데 반해 후자(後者)는 단지 힘을 뜻한다.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란 그 불법한 자가 사단의 권세로 무장할 것을 가리킨다.

- (4) 한편 '거짓'이란 단어는 능력, 표적, 기적 모두에 걸리는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귀절은 '모든 거짓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 (5) 그런데 이것들은 그들 속에 움직이고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징조와 같은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이다.
- (6) 이같이 그 불법한 자는 속임과 거짓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그의 속임과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18; 고후 2:15; 4:3).
- (7) 이 같은 미혹하는 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대상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의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깨어 기도하고 지혜로우며 믿음의 지식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1:5-7).

11. **㉠**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임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란 '진리'라고 말한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 그리고 '진리'란 복음의 진리로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말한다(참조, 롬 1:25).
- (3) 그리고 '받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무관심하였고 냉담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참조, 요 1:9-13).
- (4)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접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수용 여부를 결단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참조, 요 3:16; 계 3:20).

12. **㉠**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11, 12절)

- ㉠** (1)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 (2) 배교가 이미 시작되었고 불법의 비밀도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악의 세력은 임의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해 더 큰 악에 방치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죄의 악한 결말을 이용하신다(참조, 약 1:15).
- (4)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신 것과 같은 방법이다(참조, 삼하 24:1; 왕상 22:23; 대상 21:1; 겔 14:9).
- (5)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보다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믿음으로 거짓에 빠지게 하신다.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의미한다.
- (6) 인간은 자신의 작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위를 위해서도 불의를 진리라고 우기며, 자신의 생각이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렇다고 믿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자신을 잠시 속였다고 해서 결코 불의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참조, 약 1:26).

13. **㉠**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擇)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 (3)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신적(神的)인 측면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

의 사업을 위해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살전 1:5).

- (4)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퍼신 데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구원은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고 인간이 이것에 반응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조금 전까지도 불의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 (6)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환히 보게 된다. 즉 '성령의 역할과 우리의 응답'.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14. **㉠ 데살로니가 교인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14절)**

- ㉠** (1)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 (2) 즉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의 복된 소식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 (3) 이처럼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은 이미 역사 안에서 나타났는데(요 1:14; 13:31) 그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1:10, 12).
- (4)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산 자들로서 이 한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특권은 인간의 어떤 방도로도 얻어지거나 획득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시 3:8; 은 2:9).

15. **㉠ 15절에 나타난 바울의 권고는 무엇인가?**

- ㉠** (1) 그것은 그들이 굳게 서서 말로나 사도들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는 것이다.
- (2)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동요하지 말기를 권고한다.
- (3) 둘째, '유전을 지키라'. 이것은 전통 곧 복음의 전승을 강조하는 말이다(고전 11:23; 15:3). 즉 이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모세 이래의 조상들의 율법을 가리키지 않고 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수많은 메시지와 가르침을 의미한다.
- (4) 왜냐하면 복음의 전달이 비록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지만 복음은 신적 근원을 가진 것이며 전달자는 그가 받은 것을 자기의 사상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 (5) 이 같은 복음과 권면의 수용은 우리의 삶에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굳건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간직하여야 한다.

16. **㉠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라 (16, 17절).**

- ㉠** (1)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다 뒤에 두고 있는데 이는 '주 예수'가 14절에서부터 그의 심중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것은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바울의 기독교는 은연중에 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이 사실은 다음 절에 나오는 두 동사 '위로하다'와 '굳게 하다'가 두 개의 주어(主語)를 받으면서도 단수로 사용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4)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라는 귀절은 멸망으로부터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그의 아

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만 걸린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직능적인 구별을 의미한다(참조, 요일 4:10).

17. **㉠**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이란 어떤 의미인가? (16절)

- ㉠** (1) 여기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위로' (헬, 파라클레신)는 강건하게 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 말을 꾸며 주는 '영원한'이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위로'가 영원히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 (3) 한편 '좋은 소망'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과도 같다.
- (4) 따라서 이 귀절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 같은 은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그분께서 사랑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참조, 요일 4:11, 12).

18. **㉠**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위로하다'는 '든든케 하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신앙의 혼돈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로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이란 그들의 삶 전체가 선하며 굳건하게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 (4)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 때가 많으나 우리는 서로에게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어야 한다(참조, 사 40:1, 2; 살전 5:11, 14).

본장의 요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12절).



제 3 장 바울의 부탁과 교훈

단락구분 1-2 기도의 요청 / 3-5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써 기다리라 / 6-9 악을 떠나라 / 10-12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임 / 13-15 불의한 자를 멀리하라 / 16-18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

1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2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

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중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이다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이다

1. ㉠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교훈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먼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 (2) 반면에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복종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 (3)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 중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상의 일을 등한히 한 데 대해 책망하면서 자신들의 일로 돌아가기를 명령했다.
- (4)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교회의 회원에서 축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였다.
- (5)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이 진짜임을 확증하고 사도의 축사로 서신을 끝맺었다.

(6) 올바른 신앙 생활은 올바른 신앙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회 마다의 신앙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 2절)**

- ㉠** (1)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자신과 동료들을 무리(無理)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기를 간구해 달라는 요청이다.
- (2) 이에 앞서 바울은 본장 서두에 ‘종말로’란 말을 써서 편지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 (3) 한편 기도의 내용 중 ‘달음질하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능동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참조, 시19편; 147:15).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고’란 말씀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씀의 영향력에 중점을 둔 말이다.
- (4) 따라서 1절에 기록된 요청은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짐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선교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룬 경험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했다(참조, 살전1:5-10; 2:1, 13).
- (5) 두번째 기도 제목에서 ‘무리하고(비이상적인) 악한 사람들’이란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인물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말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와 다른 곳에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임에 틀림없다(참조, 행18:12). 여기서 ‘악한’이란 단어는 악을 행하기에 적극적인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요청은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사신들을 해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 (7) 한편 2절 말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은 바울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 (8)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 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인 복음 전파자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참조, 히13:18).

3. **㉠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절)**

- ㉠** (1) 그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신하였다.
- (2) 여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믿음의 결여(2절)와 하나님의 미쁘심 곧 신실하심이 대조되어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굳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보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가리킨다(참조, 2:9; 살전 2:18; 3:5).
- (4) 한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신앙이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요일5:14, 15).

4. **㉠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자신이 명(命)한 것을 그들이 반드시 행하리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킬 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본뜻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 (3)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

나님의 신실성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살전4:2).

- (4) 더우기 바울은 그들이 현재 충실하게 자신의 명(命)을 지키듯이 장래에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5) 이같이 하나의 믿음은 곧 전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를 믿는 것이지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다(참조, 요 5:24).

5. ㉠ 바울은 확신 가운데서 어떤 간구를 했는가? (4, 5절)

- ㉠ (1) 그는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引導)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 (2) 여기서 ‘인도하여’로 번역되어 있는 <카튀슈노>는 ‘곧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로 원래의 뜻은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이다.
- (3)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바는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내면적 삶(마음)이 사랑과 인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 (4) 그리고 ‘사랑’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 (5) 한편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을 지적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끈질긴 인내를 본받아 그들도 자신의 분량대로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 (6) 설혹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 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믿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인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참조, 시 37:7; 40:1).

6. ㉠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명령은 무엇인가? (6절)

- ㉠ (1) 그것은 그들 중 규모 없이 행하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이다.
- (2) 바울은 이 명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發)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메시지를 권위있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그런데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말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무질서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살전 5:14).
- (4) 그리고 ‘유전’이라 함은 ‘교훈’, ‘가르침’을 지칭하는데 이는 사도의 본보기(7-10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말로 전해 주었고 그 후에 그들에게 쓴 서신에서 재강조한 교훈을 의미한다(참조, 살전 4:11, 12; 5:14).
- (5) 한편 ‘우리에게 받은’이란 귀절에 대한 해석 중 어떤 해석은 ‘너희가 우리로부터 받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해석은 ‘그들이 우리로부터 받은’, 즉 ‘규모 없이 행한 형제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으로 되어 있다.
- (6) 그러나 이 두 해석의 뜻은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던 때를 연상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 (7) 본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은 오늘날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7. ㉠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인 본보기는 어떤 것인가? (7-9절)

- ㉠ (1) 그들은 규모 없이 행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糧食)을 값없이 먹지 않았

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晝夜)로 일을 했다.

- (2) '양식을 먹는다'란 말은 단지 식사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생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까지 갖고 있다(참조, 삼하9:7).
- (3)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그의 노동은 힘들었으며 꾸준했고 순전히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 (4) 둘째,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피곤을 느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다. 사도로서, 그는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받을 권리' (9절; 고전 9:4-15; 살전 2:7)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특권을 포기하고 자급(自給) 전도를 한 것은 그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 (5) 이처럼 오늘날의 교역자들도 자신의 수고에 따라 교회로부터 보수(報酬)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불신의 근거가 된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금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참조, 딤후 4:12; 딤후 1:13).

8.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교훈은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인가? (10절)

- ㉠ (1)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예수의 재림이 가까왔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아울러 대다수의 교인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다.
- (2)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격언들은 '유대인의 금언' (참조, 창 3:19)이나 헬라의 금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라 할 수 있다.
- (3)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교훈 속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인정하였다.
- (4) 이처럼 이 교훈은 바울이 기독교의 한 가르침으로 인정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삶의 원칙이었다. 즉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법칙이다. 반대로 나태는 많은 범죄의 온상이며 빈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서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참조, 잠 6:6; 10:5; 20:13).

9. ㉠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데살로니가 교인 중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로 여겼다.
- (2) 따라서 그들은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하지 말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고 설득하고 다녔다.
- (3) 이처럼 자신의 일상 생활을 무시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따름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훈들을 멀리해야 함은 물론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10. ㉠ 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명령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것은 '종용(從容)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다.
- (2) 즉 현재의 흥분된 상태를 멈추고 자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아량이나 관대함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기대해야 한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노력한 이상의 것을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불건전한 욕심인 것이다(참조, 약 1:14, 15).

11. ㉠ **테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의 말은 무엇인가? (13절)**

- ㉠ (1)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落心)치 말라'는 권면이다.
 (2) 즉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는 요동하지 말고 각자 행동의 최고 목표를 지향함은 물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말이다.
 (3) 여기서 '선'이라 함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말하며 악행과 비교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가리킨다(참조, 롬 7:21; 고후 13:7; 갈 6:9).
 (4)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몇몇 사악한 자들로 인해 진리를 위한 우리들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12. ㉠ **바울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했는가? (14, 15절)**

- ㉠ (1)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 쓴 가르침에 순종치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指目)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했다.
 (2) 여기서 '순종한다'는 헬라어 <휘파쿠에이>는 원래 '문지기가 듣는다'는 의미인데(참조, 행 12:13) 그것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다음에 그 들은 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3)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권면하는 말조차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와는 친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
 (4) 그러나 바울은 단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지 그를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의미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사람도 형제로 간주하여 그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도록 선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권면의 말이다(비교, 고전 5:9-11).
 (5) 이처럼 성도들간에는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용서하며 권면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참조, 엡 5:2).

13. ㉠ **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바람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과 주께서 그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이제까지 비록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본절에서 그가 말한 '평강의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3) 그리고 '평강'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평강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일 뿐이다.
 (4) 또한 바울은 그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있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평강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평강으로서 외부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다.
 (5)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강은 주님의 임재(臨在)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참조, 마 1:23). 더우기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과 그분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참조, 요 14:27).
 (6) 한편 바울이 사용한 '모든'이란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울이 데

살로니가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7) 이처럼 비록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도 끊임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役事)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14. **㉠** 바울은 이 서신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였는가? (17절)

- ㉠** (1)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表蹟) 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본서신이 자신의 글임을 나타내었다.
- (2) 바울은 일반적으로 대필자로 하여금 자신의 편지를 쓰게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의 독특한 필체로 몇 마디를 덧붙였다.
- (3)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몇 귀절을 그가 쓴 반면(갈 6:11) 빌레몬서와 같은 짧은 편지는 전문(全文) 을 쓰기도 하였다(몬 1:19).
- (4) 그러나 고린도전서(고전16:21)와 골로새서(골4:18)는 본서와 같이 맨 끝 부분에 자신의 친서임을 밝히고 있다. 다른 편지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가 그 편지를 쓰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서신임을 강조하지 않은 것뿐이다.
- (5) 한편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각 교회의 성도들이 종종 발견되는 거짓 교사들이 작성한 위조 편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진리를 보호하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이다.

15. **㉠**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도 내용은 무엇인가? (18절)

-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이다.
- (2) 이 축도는 살전 5:28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모두'란 말이 본절 말미에 부가되어 있다.
- (3) 여기서 '모두'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곧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형제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까지를 포함한다(참조 ㉠ 13).

본장의 요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14, 15절).

